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공식돌봄 인력의 효 의식 제고를 위한 제언

김 경 호
()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참여하기 이전 효도에 대한 태도의 수준을 측정하고,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며, 나아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통한 효 의식의 제고가 돌봄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식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와 의미를 탐구하였다. 또한 G광역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2개소에 등록된 성인남녀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참여자의 효도에 대한 태도는 개인특성변인과 사회복지 관련 과목의 수강경험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효도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공식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비공식 돌봄의 가치인 효 의식을 함양시켜야 할 당위성과 함의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서의 효 교육은 공식돌봄 영역에 자리할 수 있는 개인주의, 인종주의, 종교적 배타성 등의 병폐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요용어: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효도에 대한 태도

■ 투고일: 2011.4.12 ■ 수정일: 2011.6.1 ■ 게재확정일: 2011.6.14

I. 서론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비율의 균형을 점차 깨뜨리며, 결과적으로 노인 부양과 돌봄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로 등장시키고 있다. 노인인구 특히 질병과 장애로 인한 수발욕구가 높은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인구의 증가는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영역에서 많은 수발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던 여성들의 사회참여 또는 경제활동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이제 가정에서의 비공식보호는 한계상황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노인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노인인구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 진출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는 노인 돌봄 및 부양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공식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상황을 야기하였다(김성훈 외, 2010).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 안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공식 돌봄(formal care)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향후 우리 사회는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세대로 편입되면서 이들에 대한 돌봄과 부양의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논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보호사는 현재의 노인세대의 돌봄뿐만 아니라 미구(未久)에 노인세대로 편입될 베이비 붐 세대의 돌봄을 담당할 중추인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자신의 부모와 다른 노인들의 돌봄과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은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세대간 관계 안에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여 연면히 내려오는 효도(filial piety)라는 규범이 내재되어 있다. 효도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존경(respect), 사랑(love), 성실(loyalty), 헌신(commitment), 명예(honor) 등의 개념이 특히 강조된다(Reinharz, 1986). 최근 들어 사회변동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의 노후부양과 효도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석재은, 2009; 이성용, 2006).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효도는 일종의 상호규범(conjoint norm)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젊었을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늙어서는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다수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젊었을 때 부모에게

지불한 만큼 자신들이 늙었을 때 자녀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효도는 상이규범(disjoint norm)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이성용, 2006). 이와 같은 효도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노부모 부양 및 다른 노인의 돌봄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최정혜, 1999). 우리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효도 태도의 변화에 주목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존 노인에 대한 돌봄은 비공식 돌봄(가족 돌봄)에 주로 의존하는 방식과 공식 돌봄(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공적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특정 국가의 돌봄 방식이 이 선상의 어디에 위치하는가는 그 나라의 가족문화와 역사적 전통에 따라 달라진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들은 복지국가의 성장 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공적 서비스의 감소와 가족 돌봄에 대한 의존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최희경, 2009). 이후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 간의 관계가 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Ward-Griffin & Marshall, 2003).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효도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개의 서로 상반된 시각을 상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요양보호사에 의한 공식 돌봄(사회적 돌봄)을 추구하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영역에서 비공식 돌봄(가족 돌봄)의 전형적 가치인 효도 태도를 측정하고 해석하고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로 인한 돌봄의 부담을 사회화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공식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에게 비공식 돌봄의 가치인 효도의 태도를 묻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얻는 일 자체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시각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참여자의 효도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파악하고 그로부터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나름의 실익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자의 입장은 공식 돌봄을 수행하는 원조전문직과 비공식 돌봄의 가치인 효도 사상이 만나는 접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해, 요양보호사가 효도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노인 돌봄의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입장의 기본 시각이다. 이 입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효도는 요양보호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이

다. 과학화·기계화로 인간성이 소외되고 인간의 체취가 희미해져가는 작금에 이르러 현대 사회에서의 효도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김남근, 2008; 남병훈, 2008; 배영기, 2008; 최왕규, 2008). 전통적으로 효행자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노인들까지 돌보았는데(성규탁, 1989), 이를 통해 효도는 가정의 안정과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등 자연스럽게 사회적·정치적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효자는 자기 부모에 대한 돌봄과 부양을 넘어 자기 부모가 아닌 다른 노인들 까지도 공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데, 이는 가족적 차원의 효가 사회적 차원의 효로 확대되는 현상이다(김남근, 2008; 성규탁, 1995; 송복, 1995). 이와 같은 효도의 기능을 고려할 때 공식 돌봄의 주체인 요양보호사들이 비공식 돌봄의 가치인 효도로 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반드시 공적 돌봄의 근간을 부정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긍정적인 효도 태도는 공식 돌봄의 영역에서 정서적 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대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체계의 영역에서 노인 돌봄의 주체는 국가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노인을 심리적·정서적으로 돌보는 기능만큼은 가족 수발자가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에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허창무·유광호, 1995). 후술하는 바와 같이, 노인 돌봄의 과업특화모델에서도 정서적 돌봄은 가족수발자가 제공하고 기술적·과업적 서비스와 관련된 돌봄은 공적 서비스 제공 인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Ward-Griffin & Marshall, 2003: 191). 그런데 가족의 돌봄 기능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는 공식 원조전문인력이 가족의 가치로 무장할 경우 정서적 지지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돌봄’의 특성을 연구한 최희경(2010)의 연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좋은 돌봄의 개념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족 같은 돌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요양시설의 노인들을 조부모나 부모로 여기고 자신들은 손자녀나 자녀의 입장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질 높은 돌봄서비스라고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에게 있어서 가족역할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는 연구결과는 홍세영(2011)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즉, 홍세영(2011)의 연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공적 돌봄노동이 자식 대신 효자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여러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로 미루어보건대, 가족 돌봄의 확

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는 효도라는 비공식 돌봄의 가치로 무장한 공식 돌봄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셋째,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하여 노인 돌봄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상호작용하는 중간 영역(intermediated domain)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는데(최희경, 2009; Ward-Griffin & Marshall, 2003), 이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의 효도 의식을 장려하는 것이 전혀 불합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집에서 노인을 돌보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특성상 전문적 돌봄 제공자와 가족수발자의 공존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공식 인력과 비공식 인력 사이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노인 돌봄이라는 동일한 과업은 상품화되거나 중첩되거나 과업들 간의 경계가 흐려지기도 한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요양보호사와 가족수발자의 업무는 서로 분리되거나 어느 일방이 다른 쪽을 보완하고 대체한다기보다는 노동전환과정을 통해 두 필수적인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작동되는 형식으로 수행된다(최희경, 2009). 따라서 중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자로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요양보호사가 효도라는 가족 돌봄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 서비스의 효과성과 완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맥락에서 고령 사회를 목적에 둔 우리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들의 노인 돌봄과 부양에 관한 가치관과 의식, 특히 효도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일을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예비요양보호사의 효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시사점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Q 1: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의 효도에 대한 태도는 어떤 수준인가?
- Q 2: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교육 참여자의 효도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성인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효도는 노부모 돌봄 및 부양과 관련된 우리나라 가족문화의 기본이념이므로 노인 돌봄의 중추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효 의식과 부모부양 의사의 차이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가족문화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첩경일 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 및 부모부양 정책의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미

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상당히 드물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의 공식돌봄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 노인 공식돌봄 인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력의 실태 및 근무여건,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돌봄 경험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최희경, 2010). 그러나 공식돌봄인력의 ‘좋은 돌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족 같은’ 돌봄이라는 비공식 돌봄의 가치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식 돌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비공식 돌봄의 가치인 효 의식을 증진시키는지 여부를 밝히고, 아울러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한 효 의식의 제고가 공식 돌봄의 강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밝히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의 관계

가. 전통적인 돌봄 관계의 모델

전통적으로 의존 노인에 대한 돌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특히 가족·친척이 제공하는 ‘무급 비공식 돌봄’과 원조전문인력이 제공하는 ‘유급 공식적·전문적 돌봄’을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보는지,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보는지, 경쟁자 관계로 보는지, 아니면 후자가 전자를 대체하는 관계로 보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노인 돌봄의 모델은 위계적 보충모델, 대체모델, 과업특화모델, 보완모델로 분류된다(Ward-Griffin, 2003).

위계적 보충모델(hierarchical compensatory model)에 따르면, 누가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며, 그 규범에 따라 돌봄 방식의 선호에 대한 위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개인이 선호하는 원조방식(예: 가족, 친척, 이웃, 공식적 돌봄의 순서)은 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에 의해 규범적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노인들은 가족

·친척·이웃 등 비공식적인 지원이나 도움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공식적 돌봄 체계를 활용한다.

대체모델(substitution model)은 공적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비공식 돌봄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즉,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을 대체한다. 그러나 이 모델의 경험적 증거는 매우 약하다. 여러 실증 연구에 의하면, 공적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해서 가족 수발자들의 비공식 돌봄이 대폭 줄어들고 그 대신 공적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업특화모델(task specificity model)은 돌봄 과업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돌봄의 출처가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노인들은 가족의 특성과 구조(정서적 유대나 물리적 근접성)에 따라 서로 상이하면서도 보완적인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즉, 공식적 서비스와 비공식적 돌봄)를 함께 제공받는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가족수발자는 신변 수발과 같은 일상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반면, 공식 원조전문인력은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정서적 돌봄은 비공식적 수발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좋고, 기술적·과업적 역할과 관련된 돌봄은 공식적 돌봄 인력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과업특화모델은 서비스 내용의 분화에 의해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비공식 돌봄은 비회일적·비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용한 반면, 공적 서비스 체계는 전문적이고 특별한 훈련과 시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

보완모델(complementary model)은 공식 돌봄의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성격에 주목한다. 이 모델에서는 비공식 돌봄이 공식 돌봄보다 우선하며, 의존 노인의 욕구가 비공식 돌봄 체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보다 더 클 때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을 보완해준다고 상정한다. 간혹 공적 돌봄이 비공식 돌봄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족수발자가 자신들의 책임을 공식적 돌봄 서비스로 모두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공적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나.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의 연결과 상호작용

의존 노인에 대한 비공식-공식 돌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돌봄 서

비스 영역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상호 관련 있는 중첩된 영역(intermediated domain)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Ward-Griffin & Marshall, 2003: 194). 즉, 노인 돌봄은 비공식 영역과 공식 영역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두 영역은 상호 교차되어 있다. 이것은 노인 돌봄을 통해 가족 돌봄과 공식적 돌봄 노동이 교차하고, 가족과 복지국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최희경, 2009).

상호 중첩된 영역에서는 비공식 돌봄 제공자와 공식적·전문적 돌봄 제공자의 관계에 따라 돌봄의 성격과 구조가 달라진다. Twigg & Atkin(1994)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 수발자에 대한 공식 돌봄 제공자(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반응의 유형은 자원(carers as resources), 동료(carers as coworkers), 서비스 대상자(carers as co-client), 돌봄 역할이 대체된 사람(superceded carers)으로 존재한다(Ward-Griffin & Marshall, 2003: 195에서 재인용).

먼저, 가족수발자는 공식 돌봄서비스와는 무관하게 노인에게 무급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공식 돌봄 인력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일종의 자원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전문적 돌봄 제공자가 대부분의 돌봄을 제공하고 조직화하며 가족수발자는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동료로서의 비공식 돌봄 제공자는 공식 돌봄 제공자와 함께 돌봄 역할을 수행한다. 양측이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지만 주로 공식 인력(간호사)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돌봄 과정을 통제한다. 대개 이들의 관계는 동등한 동료라기보다는 관리자와 수행자(worker)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 때 공식 돌봄 제공자는 비공식 돌봄 제공자가 실제 돌봄 수행과정에서 대처전략, 전문적 기술, 실천적 기술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확인하고 관리한다.

한편, 서비스 대상자로서의 비공식 돌봄 제공자라 함은 가족수발자가 공식 돌봄 인력에 의해 ‘원조를 받아야 할 욕구를 가진 서비스 대상자’로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가족수발자가 돌봄 제공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유형은 가족수발자가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거나 연로한 경우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공식 돌봄 인력은 의존 노인을 돌봐야 하는 동시에 가족수발자도 보살펴야 한다.

끝으로, 돌봄 역할이 대체된 수발자의 경우, 공식 돌봄 인력이 비공식 돌봄 관계를 지원하든 것이 아니라 노인과 가족수발자를 별개의 존재로 간주하여 비공식 돌봄 관계

를 박탈하거나 대체한다. 가족수발자와 노인 사이에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공적 지원 서비스는 이들을 적절하게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 유형에서는 가족수발자와 공식 돌봄 제공자 간의 협력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적 서비스가 비공식 돌봄을 전담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네 가지 유형들은 노인 돌봄의 시간적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또는 비연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최희경, 2009: 112). 예컨대, 치매노인을 돌보기 시작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수발자가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겠지만, 치매노인을 오랫동안 보살피는 경우 가족수발자는 ‘동료’나 ‘서비스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의 관계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별개로 수행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동시에 수행된다. 요컨대, 비공식적 돌봄과 공식적 돌봄은 중첩되고 전환되는 쌍방향의 역동적인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다.

2. 요양보호사 교육 제도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2008. 7. 1)과 더불어 노인 공식보호(formal care) 체계 안에 새롭게 등장한 돌봄 전문인력이다.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는 노인생활시설과 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고자 노인복지법을 개정(법률 제8608호, 2007. 8. 3 공포)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한 국가자격증의 일종이다.

학력이나 연령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일정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는다. 요양보호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직무의 내용이 다르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요양보호사 1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요양보호사 2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자를 제외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교육과정은 크게 보아 양성과정(신규자 교육과정)과 승급과정으로

로 나뉘는데, 양성과정은 다시 1급 표준교육과정과 2급 표준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1급 표준교육과정에서는 이론 강의 80시간, 실기 연습 80시간, 현장 실습 80시간, 도합 240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2급 표준교육과정은 이론 강의 40시간, 실기 연습 40시간, 현장 실습 40시간, 도합 120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1급과 2급 표준교육과정 모두에서 경력자는 신규자 교육과정에 규정된 실기 실습의 50%를 면제받는다. 한편, 승급과정의 경우 2급 요양보호사가 1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론 강의 40시간, 실기 연습 20시간, 도합 6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경우 교육시간(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는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등 200시간을 면제 받으며(총 교육시간 40시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개론·실천론 및 실습 등 190시간을 면제 받고(총 교육시간 50시간),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는 의학 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 190시간을 면제 받는다(총 교육시간 50시간).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을 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는 전용강의실 및 실기연습실 등 기본시설과 학습교구를 갖추어야 하며, 전임교수요원 1인 이상, 필요한 수만큼의 외래교수요원, 그리고 전담행정요원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교수요원은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등으로 그 자격기준이 한정되어 있다.

3. 효도에 대한 태도

가. 개념 및 중요성

효도는 유교 사상에서 백행지본(百行之本)의 덕목으로서 존중되어온 지고지선(至高至善)의 가치이며, 자식의 부모에 대한 총괄적인 윤리체계를 한 마디로 표명한 도덕률이다(정옥분 외, 1996). 효도는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 사회의 부모-자녀관계와 부모부양 관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현재까지도 우리의 의식과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성규탁, 1994).

최근에 서구 문화의 유입과 개인주의적 사조의 영향을 받아 효도를 행하는 형태와 정도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효도와 현대적인 효도가 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김태현, 1999). 아마도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효행 방법이 달라지거나 노부 모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실천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고영복, 1983; 박재간, 1989). 효행이나 부모부양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현대적 의미의 효도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기능하고 있으며, 현대적 효도에 대한 학문적 접근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성규탁(1994)은 현대 한국인이 의식하는 효도를 행동지향적 효(희생, 책임성, 보은), 정서지향적 효(가족조화, 애정/사랑, 존경), 가족지향적 효(가족의 영속과 체면유지)로 구분하는 등 효도의 현대적 의미를 구체화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태도란 어떤 대상·생각·사람 등에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Fishbein & Ajzen, 1975). 이런 관점에서 보면, 효도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효도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나 의식을 가리킨다. 효도에 대한 태도는 효 의식 또는 효도관과 동일한 개념이나, 부모 부양의식과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는 효도에 대한 태도(즉, 효 의식 또는 효도관)와 부모 부양의식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이보현, 2006). 부모 부양의식이란 개인이 부모 부양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나 감정적 지향을 말하며 그 내면에는 사회적·도덕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효 의식은 부모 부양의식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 가치일 뿐만 아니라 보통 효 의식이 부모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영향요인(독립변인)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최정혜, 1999: 4).

대학생의 효 의식과 부모 부양의식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최정혜(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효 의식은 부모 부양의식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효 의식이 높은 대학생 집단이 효 의식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모 부양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효도에 대한 태도는 부모 부양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양의식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부양행동이다. 청소년의 효 의식과 부모 부양행동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이보현(2006)의 연구에 따르면 효 의식은 부모 부양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의 효 의식은 부모에 대한 정서적 부양, 경제적 부양, 신체적 부양 모두에 대하여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청소년의 효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실제로 부모에 대한 부양행동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나. 효도에 대한 태도의 측정

효도에 대한 태도는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된 척도에 의해 측정되고 있다(예를 들면, Gallois et al.(1996)의 효도에 대한 척도, 성규탁(1994)이 개발한 효 척도, 그리고 정옥분 외(1996)가 개발하여 사용한 효 척도 등).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효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 가운데 하나가 Gallois et al.(1996)이 개발한 ‘효도에 대한 태도’ 척도이다. 이 척도는 효도의 문화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Cheung & Kwan, 2009; Lai, 2008: 264). 이 척도는 ‘돌봄’, ‘경제적 지원’, ‘존경’, ‘복종’, ‘즐거움 제공’, ‘방문’의 정도를 묻는 5점 척도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규탁(1994)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자녀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1,250명을 대상으로 효행 이유의 차원과 각 이유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38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구성하였다. 성규탁(1994)의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행동지향적 효, 정서지향적 효, 가족지향적 효로 명명되었다.

한편, 정옥분 외(1996)는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학부모 1,23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효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체 척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정옥분 외(1996)의 효 척도는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구분되는데, 성인용 효 척도는 자효(子孝) 12덕목 72문항, 아동용은 자효(子孝) 12덕목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효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독립변수들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 일목요연한 분류가 쉽지 않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요인들을 개인특성변인, 사회복지분야 활동 경험, 사회복지분야 강의의 수강 경험으로 대별하여 관련 논의를 전개한다.

1) 개인특성변인

여러 선행연구는 효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차원의 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기타 개인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밝혀냈다. 대표적인 개인특성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종교, 소득, 성장지역 등이다.

먼저, 일련의 선행연구들에서 성별은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인 효 의식을 갖고 보고한 바 있다(김영주 외, 2004; 김태현, 1999; 임춘희·정옥분, 1988; 최정혜, 1999).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의 효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최정혜(1999)의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효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가족문화의 특성상 아들이 딸보다 자식으로서의 의무감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으며, 특히 장남의 경우 아직도 부계가족의 특성인 장남에 의한 부모양양이라는 의무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김명자·안선영, 1996).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특히 딸)이 남성보다 효도 행위를 더 많이 수행한다는 것을 밝힌 외국의 연구도 있다(Cheung & Kwan, 2009). 한편, 성별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한 선행연구도 다수 존재한다(김윤정·이창식, 2005; 이보현, 2006; 정옥분 외, 1996; 최정혜, 1997).

선행연구에 의하면, 연령은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성규택(1995)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높은 장년층의 효행의지가 연령이 낮은 소년층이나 청년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명자·안선영(1996)의 연구도 중년기 부부의 효도관이 신세대 부부의 효도관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연령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정옥분 외(1996)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 효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노년 집단의 효 인식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년 집단이 그 뒤를 이었으며, 성인초기(20대), 중고생, 아동 집단의 효 인식 수준은 가장 낮았다. 반면에, 최정혜(1999)의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효 의식이 중년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개인주의적 사회풍토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효 의식이 중년층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청년층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Cheung & Kwan (2009)의 연구에서도 성인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효 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다른 선행연구들

에서 연령이나 학교급은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바도 있다(김윤정·이창식, 2005; 이보현, 2006; 최정혜, 1997).

결혼여부가 효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몇몇 연구에서는 결혼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옥분, 1996; Cheung & Kwan, 2009; Ishii-Kuntz, 1997; Wilson, 2000). 예를 들면, 정옥분 외(1996)의 연구에서는 기혼 집단의 전통 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미혼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는 학력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독립변인이라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김태현, 1999; 정옥분 외, 1996; 최정혜, 1999). 일련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효도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임을 알려주고 있다. 예를 들면, 정옥분 외(1996)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학력별로 효 인식 수준의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사후분석(다중비교) 결과 초등학교 졸업 집단이 대졸 집단보다 더 높은 효 인식 수준을 보였다.

일련의 선행연구에서는 종교가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확인되었다(김태현, 1999; 최정혜, 1999). 예를 들면, 최정혜(199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년층과 중년층의 경우에는 종교가 불교인 경우가 기독교 또는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노인이 지각하는 성인자녀의 효 의식이 더 높았으나, 청년층의 경우에는 종교가 효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종교는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한 선행연구도 다수 존재한다(이보현, 2006; 최정혜, 1997).

소득수준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한 선행연구도 여럿 있다. 예를 들면, 최정혜(199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층과 중년층은 모두 가정의 경제력이 보통인 경우가 어렵거나 넉넉한 경우보다 더 높은 효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효 의식에 미치는 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에, 가정의 소득수준은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한 선행연구도 있다(김윤정·이창식, 2005; 김태현, 1999; Lee, Netzer & Coward, 1994; Treas & Chen, 2000).

몇몇 선행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성장지역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지역은 성인의 경우 아동청소년기를 보

낸 지역을 말하며,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공혜경(2006)과 김윤정·이창식(2005)의 연구에서 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이 농촌에 사는 청소년보다 부모 부양의식이나 효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후자의 연구에서는 중소도시 청소년들의 효 의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학생의 출신지역이 효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정혜(1997)의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출신과 시지역 출신 사이에 효도 태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2) 사회복지분야 활동 경험

자원봉사 경험, 사회복지분야 취업 경험 등 사회복지분야 활동 경험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다. 현재까지 자원봉사활동과 효도에 대한 태도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유사한 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양자 사이의 관계를 추론할 필요가 있다. 일련의 선행연구는 노인대상 자원봉사활동이 노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노인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노인이 존경과 부양의 대상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한다(김지형·장윤옥, 2001; 박경란·이영숙, 2002; 이혜원, 1999; Angiullo et al., 1996; Neururer & Rhoads, 1998). 이로써 노인대상의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부양의식이나 효도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지형·장윤옥(2001)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노인대상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여러 선행연구에서 취업경험과 효 의식 간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주제이기도 하나, 대부분 현재의 취업이나 과거의 취업경험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김명자·안선영, 1996; 정옥분 외, 1996). 예를 들면, 신세대 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효도관을 비교한 김명자·안선영(1996)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직업 종별이나 부인의 취업 여부가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옥분 외(1996)의 연구에서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사이에 전통 효에 대한 인식수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3) 사회복지분야 교육 참여 및 강의 수강 경험

사회복지와 관련된 교육이나 강의 수강경험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효도 의식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거나 감퇴를 예방하는 일은 현 세대의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며, 따라서 공적 정책목표의 하나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Gilliland & Havir, 1990; Cheung & Kwan, 2009: 180에서 재인용).

싱가포르의 한 연구에 의하면, 윤리교육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효 의식과 세대간 가족 지원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homas, 1990). 이 결과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윤리교육이 효 의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역사가 아직 일천하여 동 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양적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나, 몇몇 질적 연구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 등 사회복지분야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거나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노인 돌봄에 대한 태도나 부모 부양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예컨대, 김성훈 외(2010)의 현상학적 연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경험한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막연한 학습동기’, ‘부실한 교육의 양과 질’, ‘교육과정 수료 후의 아쉬움’,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 등과 같은 주제묶음으로 대변되는 부정적 현상을 경험하지만 일부 학습자들은 ‘돌봄 태도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부 참여자들은 “노인을 돌보는 일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노인 돌봄서비스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훈 외, 2010: 10).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이러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노부모 부양, 효도, 노인 돌봄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회복지 관련 교육이나 강의 수강 경험이 효도에 대한 태도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한 선행연구도 있다. 예를 들면, 노부모 동거 또는 비동거 가족원을 대상으로 노부모 부양자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 이성희·이승미(2003)의 연구에서는 노부모 부양의식과 노부모 부양부담에 있어서 교육 전의 사전 조사와 교육 후의 사후조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참여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one-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첫 시간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이들 조사대상자들에게 240시간의 1급 요양보호사 신규자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동 교육의 수료일에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설계

집단	사전조사 (교육 전)	실험처치 (교육중재)	사후조사 (교육 후)
실험군	O ₁	X ₁	O ₂

O₁: 교육중재 전 실시
 X₁: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참여(240시간)
 O₂: 교육중재 후 실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결과와 연구자의 관심사항을 종합하여 연구설계에 맞도록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앞서 서론에서 두 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한 바 있는데, 각 연구문제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과 관련된 연구가설>

- H-1.1: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 효도에 대한 태도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
- H-1.2: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 효도에 대한 태도는 사회복지분야 활동 경험에 따라 다를 것이다.
- H-1.3: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 효도에 대한 태도는 사회복지분야 강의 수강 경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구문제 2와 관련된 연구가설>

H-2.1: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효도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H-2.2: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참여자의 하위집단별로 다를 것이다.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통상 1회에 40명 이내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본 조사에서는 2009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G광역시의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기관(2개소)에 등록하여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1급 신규자 교육과정)에 등록한 인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의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매 교육과정마다 설문조사는 2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사전조사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시작하는 날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사후조사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수료하는 당일에 실시하였다.

3. 실험 처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매 교육과정마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이론 강의(80시간), 실기 연습(80시간), 현장 실습(80시간), 도합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표 1). 동 교육은 노인복지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한 기간과 내용으로 적용되었다.

표 1. 요양보호사 1급 표준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단위: 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실습
이론 강의 (80시간), 실기 연습 (8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16	5
	요양보호 각론	기본 요양보호 기술	27	4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	9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	4	8
		서비스 이용 지원	4	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5	
현장 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4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40
계 (240시간)			80	160

4. 조사도구

가. 종속변수: 효도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에 참가한 성인 남녀의 효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중순(2010)이 번역하여 사용한 Gallois et al.(1996)의 척도 6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돌봄, 경제적 지원, 존경, 복종, 기쁨의 제공, 방문의 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점~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사전조사의 경우 $\alpha=.928$, 사후조사에서는 $\alpha=.837$ 로 조사되었다.

나. 독립변수

1) 개인특성변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효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개인특성 변인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종교, 월평균 가구소득, 이동청소년기 성장지역이었

다. 이 중 결혼상태는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다른 종교, 종교 없음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교 있음’과 ‘종교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아동청소년기 성장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사회복지분야 활동 경험

조사대상자의 사회복지분야 활동 경험은 자원봉사 경험과 사회복지분야 취업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자원봉사 경험은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 취업 경험도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 사회복지분야 강의 수강 경험

조사대상자의 사회복지분야 수강 경험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 노인복지 관련 과목과 그 외의 사회복지 관련 과목의 수강 경험을 조사하였다. 이 두 개의 문항 역시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5. 자료의 분석

조사기간 동안에 회수된 설문지는 도합 202부이었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18부)를 제외하고 184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4.0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 일반현황

조사대상자 184명의 일반현황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성별을 보면, 여성(전체의 88.0%)이 남성(12.0%)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돌봄 업무라는 요양보호사 직무의 특성상 남성보다 여성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 현황(n=184)

구 분		빈도(명)	비율(%)	비고
성별	남성	22	12.0	
	여성	162	88.0	
연령	20-30대	56	30.4	M=43.27 (SD=9.576) Max=64, Min=21
	40대	76	42.3	
	50-60대	52	28.3	
결혼상태	미혼	32	17.4	
	기혼	152	82.6	
학력	중졸 이하	32	17.4	
	고졸	82	44.6	
	전문대졸 이상	70	38.0	
종교	있음	125	67.9	
	없음	59	32.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84	45.7	
	200-300만원 미만	64	34.8	
	300만원 이상	36	19.6	
성장지역	대도시	68	37.0	
	중소도시	49	26.6	
	농어촌	67	36.4	
자원봉사 경험	있음	111	60.3	
	없음	73	39.7	
복지분야 취업경험	있음	39	21.2	
	없음	145	78.8	
노인복지 수강경험	있음	76	41.3	
	없음	108	58.7	
사회복지 수강경험	있음	71	38.6	
	없음	113	61.4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를 보면, 40대(전체의 42.3%)가 가장 많으며, 이어서 20-30대(30.4%)와 50-60대(28.3%)의 순서로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3.27세(표준편차 9.576)이었으며, 최고령자는 64세이고 최연소자는 21세이었다. 결혼상태를 보면, 기혼자가 전체 응답자의 82.6%이며, 미혼자는 17.4%에 불과하였다. 학력은 고졸이 전체의 44.6%, 전문대 졸업 이상이 38.0%, 그리고 중졸 이하는 17.4%로 조사되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7.9%인 반면, 종교가 없는 응답자는 32.1%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34.8%로서 가장 많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성장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거의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한편,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0.3%에 달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취업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1.2%에 불과하였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인복지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1.3%이었으며, 그밖에 사회복지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험자는 전체 응답자의 38.6%로 집계되었다.

2. 요양보호사 교육 실시 전후의 효도에 대한 태도 비교

조사대상자의 효도에 대한 태도 점수는 요양보호사 교육의 실시를 기준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측정되었는데,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간에는 효도에 대한 태도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사전조사의 경우, 결혼상태, 학력, 성장지역, 노인복지 수강경험, 사회복지 수강경험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결혼상태를 보면,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긍정적인 효도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10$). 또한 학력에 있어서도 효도 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p < .10$), 사후검정(Bonferroni test) 결과에 의하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더 긍정적인 효도태도를 갖고 있었다($p < .10$).

성장지역에 따라서도 효도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p < .05$), 사후조사(Bonferroni test)에 따르면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응답자가 대도시에서 성장한 응답자보다 더 긍정적인 효도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복지와 사회복지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험은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복지 수강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p<.05$), 그리고 사회복지 수강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p<.05$) 각각 더 긍정적인 효도관을 갖고 있었다.

표 3. 집단별 효도에 대한 태도 점수 비교(n=184)

구 분		사전조사			사후조사		
		평균	SD	t(F)값	평균	SD	t(F)값
성별	남성	3.00	1.445	-.069	4.22	0.578	0.956
	여성	3.02	1.298		4.06	0.763	
연령	20-30대	3.21	1.315	0.935	4.11	0.665	0.463
	40대	2.98	1.245		4.02	0.772	
	50-60대	3.02	1.312		4.13	0.790	
결혼상태	미혼	3.42	1.343	1.905 +	4.17	0.620	0.790
	기혼	2.93	1.294		4.06	0.768	
학력	중졸 이하(a)	2.85	1.366	2.758 + (b<c)	4.09	0.937	0.299
	고졸(b)	2.84	1.250		4.03	0.732	
	전문대졸 이상(c)	3.30	1.325		4.13	0.668	
종교	있음	2.99	1.332	-0.416	4.08	0.758	-0.021
	없음	3.08	1.277		4.08	0.72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08	1.367	0.147	4.09	0.722	0.752
	200-300만원 미만	2.97	1.308		4.14	0.722	
	300만원 이상	2.98	1.210		3.95	0.835	
성장지역	대도시(a)	2.73	1.236	3.414* (a<b)	4.00	0.845	0.633
	중소도시(b)	3.36	1.313		4.10	0.702	
	농어촌(c)	3.05	1.338		4.14	0.664	
자원봉사 경험	있음	3.14	1.353	1.579	4.14	0.704	1.306
	없음	2.83	1.234		3.99	0.799	
복지분야 취업경험	있음	3.10	1.355	0.412	4.06	0.730	-0.166
	없음	3.00	1.304		4.08	0.750	
노인복지 수강경험	있음	3.38	1.278	3.145**	4.11	0.630	0.459
	없음	2.77	1.283		4.06	0.818	
사회복지 수강경험	있음	3.36	1.301	2.802**	4.10	0.630	0.374
	없음	2.81	1.280		4.06	0.810	

+ 0.10 * p<.05 ** p<.01 *** p<.001

그런데 사후조사에서는 집단별로 효도에 대한 태도 점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요양보호사 교육에의 참여 경험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요양보호사 교육에 참여하기 전에는 결혼상태, 학력, 성장지역, 노인복지 수강경험, 사회복지 수강 경험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 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요양보호사 교육이 참여자의 효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으로 인한 효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요양보호사 교육으로 인한 효도에 대한 태도의 변화

가. 전반적인 효도에 대한 태도 점수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효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6문항을 합산하여 전반적인 효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5점 만점으로 변환한 결과, 사전조사에서의 효도에 대한 태도는 평균 3.03점(표준편차 1.311)이었으나 사후조사에서는 평균 4.07점(표준편차 0.745)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즉, 요양보호사 교육에의 참가로 인해 전반적인 효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

표 4. 전반적인 효도에 대한 태도 점수의 변화(n=184)

문항	사전조사		사후조사		t값
	평균	SD	평균	SD	
효도에 대한 태도 (합계점수)	3.03	1.311	4.07	0.745	-8.990***

* $p<.05$ ** $p<.01$ *** $p<.001$

나. 문항별 점수의 변화

효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6개 문항의 응답점수는 모두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실시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6문항 모두 요양보호사 교육 참가 전에 비해 교육 수료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점수 증가를 보였다($p < .001$). 이것은 요양보호사 교육이 참가자의 효도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존경하여야 한다.’는 문항의 점수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1.33점 증가), ‘자녀들은 근처에 사는 부모님을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방문해야 한다.’는 문항이 그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1.33점 증가). 반면에,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아야 한다.’는 문항의 점수 증가폭은 가장 적었다(0.82점 증가).

표 5. 문항별 효도에 대한 태도 점수의 변화

문항	구분	평균	SD	t값
1.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아야 한다.	사전조사	3.07	1.499	-5.985***
	사후조사	3.89	1.156	
2.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	사전조사	3.09	1.614	-8.074***
	사후조사	4.24	0.962	
3.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존경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3.10	1.737	-9.136***
	사후조사	4.43	0.885	
4.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3.03	1.196	-4.686***
	사후조사	3.61	1.024	
5.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사전조사	3.03	1.532	-8.509***
	사후조사	4.18	0.931	
6. 자녀들은 근처에 사는 부모님을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방문해야 한다.	사전조사	2.85	1.540	-8.878***
	사후조사	4.13	1.035	

* $p < .05$ ** $p < .01$ *** $p < .001$

4. 집단별 효도에 대한 태도의 변화

조사대상자의 하위집단별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집단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사전조사의 점수보다 사후조사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즉,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효도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앞서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있어서 모두 성별에 따른 효도에 대한 태도 점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표 6>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있어서 사전조사 점수보다 사후조사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것은 효도 태도에 대한 요양보호사 교육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즉 성별을 불문하고,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 40대, 50-60대 집단이 모두 요양보호사 교육으로 인해 효도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연령집단 간에는 효도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표 3), 연령집단별로는 모두 사전조사 점수보다 사후조사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표 6). 즉, 효도 태도에 미치는 요양보호사 교육의 효과가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연령집단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의 경우,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혼집단과 기혼집단은 모두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런데 앞서 집단별 비교(표 3)에서 사전조사의 경우 기혼집단의 효도에 대한 태도 점수가 미혼집단보다 더 낮았으나 사후조사의 경우 그러한 집단별 점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결과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미혼집단보다 기혼집단의 효도 태도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사후조사에서는 하위집단별로 효도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실제로 <표 3>에서 미혼집단의 경우는 사후조사 점수와 사전조사 점수의 차이가 4.53점인 반면, 기혼집단의 경우는 사후조사 점수와 사전조사 점수의 차이가 6.66점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집단은 모두 사후조사 점수가 사전조사 점수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앞서 집단별 비교(표 3)에서는 사전조사의 경우 고졸 집

단의 태도 점수가 가장 낮고 전문대 졸업 이상 집단의 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 사후조사에서는 이러한 집단 간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은 고졸 집단의 효도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장 많이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사후조사에 있어서는 하위집단 간에 효도 태도 점수의 차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를 보면, ‘있음’과 ‘없음’이 모두 사후조사 점수가 사전조사 점수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한편, 앞서 집단별 비교(표 3)에서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있어서 모두 종교의 유무에 따라 효도에 대한 태도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두 결과를 종합하면, 요양보호사 교육의 효과는 종교의 유무를 불문하고 두 집단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에도 4개의 하위집단 모두 사전조사 점수보다 사후조사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앞서 월평균 가구소득의 하위집단별 비교(표 3)에서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있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도 태도에 대한 요양보호사 교육의 효과는 소득의 하위집단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하위집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장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성장한 응답자 집단은 모두 사전조사 점수보다 사후조사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런데 앞서 집단별 비교(표 3)에서는 사전조사의 경우 대도시에서 성장한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사후조사에서는 집단별로 유의한 효도 태도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요양보호사 교육이 대도시에서 성장한 집단의 효도에 대한 태도 점수를 가장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사후조사에서는 하위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집단별 사전점수 및 사후점수 변화 정도(n=184)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값
		평균	SD	평균	SD	
성별	남성	3.00	1.445	4.22	0.578	-3.269**
	여성	3.03	1.296	4.05	0.764	-8.353***
연령	20-30대	3.21	1.315	4.11	0.665	-4.788***
	40대	2.98	1.245	4.01	0.774	-5.580***
	50-60대	2.90	1.402	4.13	0.790	-5.155***
결혼상태	미혼	3.42	1.343	4.17	0.620	-2.852**
	기혼	2.94	1.293	4.05	0.769	-8.576***
학력	중졸 이하	2.90	1.366	4.09	0.937	-3.685**
	고졸	2.84	1.250	4.02	0.733	-7.063***
	전문대졸 이상	3.30	1.325	4.13	0.668	-4.498***
종교	있음	3.00	1.331	4.08	0.758	-7.560***
	없음	3.08	1.277	4.07	0.722	-4.83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09	1.364	4.09	0.722	-5.790**
	200-300만원 미만	2.97	1.308	4.14	0.722	-5.591***
	300만원 이상	2.98	1.210	3.93	0.838	-3.959***
성장지역	대도시	2.73	1.236	3.99	0.847	-6.325***
	중소도시	3.40	1.298	4.10	0.702	-3.048**
	농어촌	3.05	1.338	4.14	0.664	-5.997***
자원봉사 경험	있음	3.14	1.353	4.13	0.705	-6.487***
	없음	2.85	1.232	3.99	0.799	-6.278***
복지분야 취업경험	있음	3.10	1.355	4.04	0.733	-3.575**
	없음	3.01	1.303	4.08	0.750	-8.261***
노인복지 수강경험	있음	3.38	1.278	4.10	0.631	-4.280***
	없음	2.78	1.283	4.06	0.818	-8.183***
사회복지 수강경험	있음	3.36	1.301	4.10	0.631	-4.009***
	없음	2.82	1.280	4.06	0.810	-8.379***

* p<.05 ** p<.01 *** p<.001

자원봉사 경험의 경우,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모두 사전조사 점수보다 사후조사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앞서 집단별 비교(표 3)를 보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도 태도 점수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교육

은 자원봉사 경험의 유무에 따라 그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 않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집단이나 그러한 경험이 없는 집단 모두에게 효도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분야 취업 경험을 보면,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모두 사전조사 점수보다 사후조사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앞서 집단별 비교(표 3)에서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도 태도 점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교육의 효과는 복지분야 취업 경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 않으며, 복지분야 취업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효도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험을 보면,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모두 사전조사 점수에 비해 사후조사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앞서 집단별 비교(표 3)에서는 무경험자 집단의 효도 태도 점수가 유경험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던 반면, 사후조사에서는 그러한 집단 간 태도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요양보호사 교육은 유경험자 집단보다 무경험자 집단의 효도 태도를 더 많이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사후조사에서는 하위집단 간에 효도 태도의 점수 차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노인복지 외의 사회복지 강의를 수강한 경험을 보면, 유경험자 집단과 무경험자 집단 모두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앞서 집단별 비교(표 3)에서는 사전조사의 경우 무경험자 집단의 효도 태도 점수가 유경험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던 반면, 사후조사에서는 그러한 집단 간 효도 태도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교육이 무경험자 집단의 효도 태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며, 그 결과 사후조사에서는 하위집단 간에 효도 태도의 점수 차이가 소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양성교

육을 통한 효 의식의 제고가 돌봄서비스의 강화에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앞서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세 개의 가설이 설정된 바 있다. 먼저, 연구가설 H-1.1(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 효도에 대한 태도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과 관련하여, 사전조사의 결과를 보면 결혼상태, 학력, 성장지역의 경우는 하위집단별로 효도에 대한 태도 점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 연령, 종교, 가구소득의 경우는 하위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독립변수군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운데 일부 변수들만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1.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된다. 먼저 결혼상태를 보면,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는 미혼집단이 기혼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효도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옥분 외(199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미혼집단이 기혼집단보다 더 연령이 낮다고 볼 때,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효 의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두 변수 사이에 다른 변인들이 매개 또는 외생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전문대졸업 이상의 집단이 고졸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효도 태도를 갖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학력이 낮을수록 효 의식이 높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정옥분 외, 1996; 최정혜, 1999)과는 다르다. 또한 성장지역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집단이 대도시에서 성장한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효도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효 의식이 농촌 청소년보다 더 높다는 김윤정·이창식(200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요컨대, 성인들의 효도에 대한 태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효 의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황조건에 맞는 적절한 개입방안이 요구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가설 H-1.2(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 효도에 대한 태도는 사회복지분야 활동 경험에 따라 다를 것이다)와 관련하여, 사전조사의 결과를 보면 자원봉사 경험과 사회복지분야 취업 경험은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H-1.2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해 기각되었다.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대상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족관계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인다는 사실을 보고한 김지형·장운옥(2001)의 연구결과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 취업 경험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김명자·안선영, 1996; 정옥분 외, 1999)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연구가설 H-1.3(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 효도에 대한 태도는 사회복지분야 강의 수강 경험에 따라 다를 것이다)과 관련하여, 사전조사의 결과를 보면 노인복지 관련 과목의 수강 경험과 사회복지 관련 과목의 수강 경험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의해 H-1.3은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요양보호사 교육이 참여자들에게 돌봄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김성훈 외(2010)의 연구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이것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효에 관한 개인의 가치체계에 개입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앞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두 개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먼저, 연구가설 H-2.1(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효도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과 관련하여,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점수를 비교하면 참여자의 효도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척도 문항을 합산한 전반적인 효도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있어서, 그리고 각 문항별 점수에 있어서, 사전조사 점수에 비해 사후조사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참여자의 효도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H-2.1은 본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국내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효도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직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연구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노부모 부양 및 효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H-2.2(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참여자의 하위집단별로 다를 것이다)와 관련하여,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결과를 비교하면 사회

인구학적 변인, 사회복지분야 활동경험, 사회복지분야 교육 경험의 하위집단 모두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교육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 의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효과는 하위집단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하위집단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의해서 H-2.2는 기각되었다. 이로써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하위집단 간의 차이보다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커리큘럼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식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효도 등 가족 돌봄의 가치를 교육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의 효도 교육은 ‘인간애의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데, 효도 안에는 차별화의 원리(principle of differentiation)와 상호 의사소통의 원리(principle of communication)가 내재되어 있다(Tu, 1995).

첫째, 차별화의 원리로서의 효는 친족 간의 유대관계의 강화를 의미하는데,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효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므로 효를 중시하는 유교의 윤리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국가에 대한 충성에 앞서 부모에 대한 효를 우선시 하고 있다. 자신의 부모조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노인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의 부모에게 효성스러운 사람이라면 아마도 다른 사람의 부모에게도 사랑과 친절을 베풀 것이다(Luo, 1995). 차별화의 원리로서의 효도 가치가 가장 잘 적용되는 영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 내에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자기 부모를 돌보는 이른바 ‘동거가족 요양보호사’의 경우이다. 즉,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25호)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자기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급여제공시간은 1일(즉, 1회 방문당) 90분 이상 120분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요양보호사는 효도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식 돌봄인력이 된다.

둘째, 의사소통의 원리로서의 효도는 요양보호사가 자기 부모가 아닌 지역사회 노인 돌보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이다. 의사소통의 원리로서의 효는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을 초월할 것은 물론 가족, 지역, 사회, 국가의 이익까지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유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하늘의 자식이자 자연의 자식이므로 개인이 속한 작은 집단을 초월하여 자연과 하늘에 대한 효를 실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태학적이고 환경론적인 함축을 가진 효사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체

도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와 같은 범윤리적 효사상으로 무장한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의 영역에 자리할 수 있는 개인주의, 인종주의, 종교적 배타성, 결과적으로 자기과파적인 인간중심주의의 병폐를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이라는 이분법을 초월한 새로운 유형의 ‘공식 돌봄’ 인력과 서비스가 필요하며(Levande et al., 2000), 이 가족형 모형(family-like model)에서 공식 돌봄 인력은 부모를 돌보는 자녀의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Curtis et al., 2005). 물론 이 경우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을 연결하는 접점은 효도의 가치가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로는 최희경(2010)과 홍세영(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좋은 돌봄의 개념을 탐구한 최희경(2010, pp. 44-45)의 질적연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공식돌봄은 곧 ‘가족 같은’ 돌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것은 공식 돌봄인력이 효도와 같은 비공식 가치로 무장할 경우 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돌봄노동의 의미와 특성을 연구한 홍세영(2011)의 질적연구에서도 노인돌봄은 감정노동의 일종이며,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좋은 돌봄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식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가족적인 가치를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역시 공식 돌봄인력이 비공식 돌봄의 가치인 효도 의식을 갖는 것이 좋은 돌봄의 출발점을 암시하고 있다.

요컨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참여하는 일반 성인의 효 의식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므로 노인 돌봄의 전문인력이라는 이들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할 때 이들의 효도에 대한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교육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에 효도, 노인부양, 노인 돌봄의 가치 등과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이론 강의 영역 속에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접점으로서의 효도의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언은 일부 선행연구와 궤를 같이 한다. 예를 들면, 김성훈 외(2010)의 연구 결과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효도, 노부모 부양, 노인 돌봄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효 의식 강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민간협회의 차원에서 전국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효 교

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연구 결과에 불과하므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 효도에 대한 태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조사대상자가 제한된 일 지역의 표본이며,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 사회와 가족문화와 정서가 다른 외국의 효도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효 태도 척도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이 척도를 자기 부모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이른바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아닌 일반적인 요양보호사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그를 감안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였는데, 외부변수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였다는 점 때문에 연구결과의 내적 타당도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참여자들의 효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일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부양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참여자인 일반 성인의 효 의식 함양을 위한 적절한 중재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연구라는 제한점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 표본의 대표성을 갖춘 전국 차원의 후속연구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참여자의 효 의식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김경호는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연구방법 등이다.

(E-mail: khk944@honam.ac.kr)

참고문헌

- 고영복(1983). 전통사회의 효 개념과 현실적 과제.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아산사회복지재단.
- 공혜경(2006). 청소년의 부모 부양에 관한 도시와 농촌간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노인복지학과, 한서대학교, 서산.
- 김남근(2008). 효 문화의 생활화 방안에 관한 연구. *효학연구*, 8, pp.21-45.
- 김명자, 안선영(1996). 신세대 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효도관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6), pp.113-125.
- 김성훈, 신주화, 하정미(2010).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노년학*, 30(1), pp.1-20.
- 김영주, 공인숙, 이주리, 민하영, 이점숙(2004).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와 아동기 양육경험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pp.701-709.
- 김윤정, 이창식(2005). 미래세대를 위한 노인부양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36, pp.333-402.
- 김정석, 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pp.155-168.
- 김지형, 장윤옥(2001).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노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pp.83-99.
- 김태현(1999). 노인의 가족결속도와 효의식 및 우울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노인과 재미한국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19(2), pp.79-96.
- 남병훈(2008). '효 문화 대중화'의 의미와 청소년 교정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13, pp.63-84.
- 박경란, 이영숙(2002).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 증가가 대학생의 노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pp.37-51.
- 박재간(1989). 전통적 효사상과 그 현대적 의의: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중순(2010).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노인복지 분야 종사의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호남대학교, 광주.

- 배영기(2008). 동서양의 절대가치로서의 효에 사상(孝愛思想)의 원리. *효학연구*, 7, pp.149-161.
- 석재은(2009).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요인. *보건사회연구*, 29(1), pp.163-191.
- 성규탁(1989). 현대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9, pp.28-43.
- _____(1994).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척도와 차원. *한국노년학*, 14(1), pp.50-68.
- _____(1995a).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내용분석.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효사상과 미래사회*; 1995. 5. 15-17, pp.447-475.
- _____(1995b).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 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15(1), pp.1-14.
- 송복(1995). 효사상과 사회발전.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효사상과 미래사회*; 1995. 5. 15-17, pp.559-575.
- 이보현(2006). 청소년의 효 의식과 부양의식이 부모 부양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노인복지학과, 한서대학교, 서산.
- 이성용(2006). 가족주의와 효. *한국인구학*, 29(2), pp.215-240.
- 이성희, 이승미(2003). 노부모 부양자 교육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pp.25-36.
- 이혜원(1999).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9, pp.266-289.
- 임춘희, 정옥분(1988). 분가한 도시 장남 부부의 부양의식 유형: 세대간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6(1), pp.163-177.
-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외(1996). 한국인의 효 인식 및 실천 정도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pp.387-403.
- 최근덕(1995). 효의 오늘과 내일.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효사상과 미래사회*. 1995.5.15-17, pp.57-77.
- 최왕규(2007). 한국인의 가정갈등과 효도관에 관한 연구. *효학연구*, 5, pp.223-264.
- 최정혜(1997).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5(6), pp.55-69.
- 최정혜(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연구: 노년, 중년,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9), pp.85-101.
- 최희경(2009).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과 돌봄 서비스의 질 보장. 서울: 집문당.

- 최희경(2010).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좋은 돌봄'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 연구*, 48, pp.31-58.
- 허창무, 유광호(1995). 효사상의 현대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개혁방향.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효사상과 미래사회*; 1995. 5. 15-17, pp.363-380.
- 홍세영(2011).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돌봄노동의 의미와 특성. *노인복지연구*, 51, pp.165-190.
- Angiullo, L., Whitbourne, S. K., Powers, C.(1996). The effect of instruction and experience o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2(7), pp.483-495.
- Cheung, C.-K., Kwan, A. Y.-H.(2009). The erosion of filial piety by modernisation in Chinese cities. *Aging & Society*, 29, pp.179-198.
- Curtis, M. P., Sales, A. E. B., Sullivan, J. J., Hedrick, S. L.(2005). Satisfaction with care among community residential care resident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7(1), pp.3-27.
- Fishbein, M., Ajzen, J.(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Gallois, C., Giles, H., Ota, H., Pierson, H. D., Ng, S. H., Lim, T. S., et al. (1996).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across the Pacific rim: The impact of filial piet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ross-Cultural Psychology, Montreal, Canada.
- Gilliland, N., Havir, L.(1990). Public opinion and long-term care policy. In Biegel, D. E., & Blum, A.(eds.). *Aging and caregiving: Theory, research and policy*. Newbury Park, CA: Sage.
- Ishii-Kuntz, M.(1997).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mo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Americans. *Family Relations*, 46(1), pp.23-32.
- Lai, D. W. L.(2008). Intention of use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home support services by Chinese-Canadian family caregivers. *Social Work in Health Care*, 47(3), pp.259-276.

- Lee, G. R., Netzer, J. K., Coward, R. T.(1994).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nd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assist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3), pp.559-565.
- Levande, D. I., Hernick, J. M., Sung, K.-T.(1994). Eldercare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Balancing family and community support. *Journal of Family Issues*, 21(5), pp.632-651.
- Luo, G.(1995). The Chinese tradition of filial piety and contemporary society.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효사상과 미래사회; 1995. 5. 15-17, pp.477-489.
- Neururer, J., Rhoads, R. A.(1998). Community service: Panacea, paradox, or potenti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9(4), pp.321-330.
- Reinharz, S.(1986). Loving and hating one's elders: Twin themes in legend and literature". In Pillemer, K. A. and Wolf, R.(eds.). *Elder abuse: Conflict in the family*. Dover, MA: Auburn House.
- Thomas, E.(1990). Filial piety, social change and Singapore youth. *Journal of Moral Education*, 19(3), pp.192-204.
- Treas, J., Chen, J.(2000). Living arrangements, income pooling, and the life course in urban Chinese families. *Research on Aging*, 22(3), pp.238-261.
- Tu, W.-M.(1995). Humanity as embodied love: Exploring filial piety in a global ethical perspective. 한국방송공사, 삼성복지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효사상과 미래사회. 1995.5.15-17, pp.577-591.
- Twigg, J., Atkin, K.(1994). *Carers perceived: Policy and practice in informal care*. Philadelphia: Open Press.
- Ward-Griffin, C., Marshall, V. W.(2003). Reconceptua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eldercare". *Journal of Aging Studies*, 17, pp.189-208.
- Wilson, J.(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pp.215-240.

Factors Affecting Attitudes Toward Filial Piety Among Participants in Long-term Caregivers Education Courses

Kim, Kyung Ho
(Ho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attitudes toward filial piety among participants in long-term caregivers education courses and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long-term caregivers education courses⁹ and their attitudes toward filial piety. Following a literature review,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 set of questionnaires(n=202)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4.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socio-demographic variables appeared to be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perceptions of filial piety. Second, long-term caregivers edu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attitudes toward filial pie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eldercare was discussed. Finally, implications for enhancing attitudes toward filial piety among participants in long-term caregivers education courses were discussed.

Keywords: Long-term Caregivers, Long-term Caregivers Education Courses, Attitudes Toward Filial Piety